

공정적 · 생태적 사고 꿈꾸는 환경교육

글 | 이정애 _ 신방학중학교 교사 julee39@hanmail.net

올 해 3월 새로운 학교에 전근을 왔다. 전근 온 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지도하고 있었다. 필자도 그 중 한 학급을 지도하게 되어 가슴이 무척 설레었다. 왜냐하면 지난 1994년에 환경부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후 1995~1996년까지 교과 선택과목으로 환경을 지도했기 때문이다.

열악했던 10여년 전 환경교육 현황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의 실태는 다소 열악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확산을 위해 TV, 라디오, 책, 신문, VTR 등 대중 전달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등을 권장·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학교 환경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가치, 신념, 태도, 윤리를 갖게 하자는 것'이었다. 나아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 내려는 교육적 활동에 목표를 두고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운영, 부전공 연수 및 환경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을 부전공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료가 부족했고, 지금 처럼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환경 부전공을 이수하고 서울에서 환경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여 가칭 '중등환경교사모임'을 만들었다. 서로 토론을 하면서 환경 교과서를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재구성을 하였다. 다행히 학생들은 재미있어 했고, 일반교과에 의기소침한 학생들이 환경교과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무척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른 학교에 전근을 가게 되면서 환경교과를 지도하지 못하였다.

2005년 현재, 환경교사 중 27%만이 전공자

10여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그동안 환경교육은 많이 변화되었다. 1995년에 환경교과 선택학교는 전국적으로 38개교(제6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중간보고 및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였다. 100여명의 교사가 환경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38명의 교사가 환경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교원대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환경교육과를 개설하였고, 환경교육과를 졸업하면 곧바로 교사에 임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10년 후인 2005년 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교사는 1천986명이며 이중 1천449명(73%)은 미자격 상치교사로 구성되어있다. 2000~2005년까지 환경교육학과 졸업생은 535명이며 이중 58명(10.8%)만이 환경교사로 임용되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환경교과 전공자들이 환경을 지도하길 바란다.

1995년도에는 사회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였다. 단, 환경교사를 격려하는 차원의 기초시설 견학체험이 전부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일선 학교나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환경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학교에 환경강사를 지원해주고 기초 시설 견학체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환경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가을에는 과학 축전 한마당에 환경 체험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995년도에는 보급된 책자 아니면 VTR 등이 자료의 전부였으나 지금은 정보화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있다. 그 예로 환경부 홈페이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높이 환경교실'과 환경교육교사와 전문가를 위한 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인 '키드넷'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



환경모의 평가토론회를 하고 있다.

보원의 꿀맛닷컴사이트에서도 환경교육에 관한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 및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이 많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교육관련 사이트들이 통합 및 연계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새로 짠 환경 교과과정에 학생들 대만족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용해 필자는 새로운 인정도서를 만드는 기분으로 환경교과를 지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역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지역사회와의 환경교육 3분야로 나누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자신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키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여 학급 내에서 '우리들의 환경 이야기 만들기'를 하였다. 또, 모 단체에서 만든 환경십계명을 이용하여 개인의 환경십계명을 만들도록 하고, 조별 환경십계명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학급의 환경십계명 만들기를 하였다.

학생들의 편식지도를 위하여 점심시간에 나오는 반찬을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여 매주 창의적재량활동시간에 잘 지킨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빈그릇 운동을 전개하였다.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미생물로 분해하여 퇴비를 만들어 학교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관심 있는 학생을 통하여 가정에 퇴비를 분양하였다. 학교에 야생화 가꾸기 동아리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야생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가정에서 사용한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를 만들기를 하여 가정에 가져가도록하기도 하였다. 수업시간에는 환경비디오를 보여 주고 감상문을 쓰도록 하는 등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했다. 본교 주변에는 도봉산 자락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바로



환경재생비누 만들기를 하고 있다.

알기 차원으로 도봉산 자락에 자라고 있는 식물을 조사하고 발표시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되었다. 이제까지는 '환경' 하면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우리 주변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급에서 다음 환경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조사해와 토론을 통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시간에 발표하고 만든 자료를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로 만들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였다. 연말에는 포트폴리오 전시회를 열고 학생들의 평가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이 함께 하는 환경교육

우리는 회색의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마음에는 자연이 내재되어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틈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환경교육이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세상을 위해 긍정적이고 생태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회색빛 콘크리트 사이에서도 초록의 생명이 자라나듯 다양한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교육,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교육,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되길 바란다. ⑤⑦



글쓴이는 전북대학교 과학교육과(화학 전공)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환경부전공을 이수했다.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환경교과서 심의위원, 환경교과 검정고시 출제위원, 2006년 북부과학동산 강사 등을 지냈다.